

2021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384억 원 증액요구

대한민국 돌봄의 출발점,
지역아동센터 운영 정상화를 위한

2021年 豫算請願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님께

꿈을 꿀 수 있는 나라, 기회의 차별이 없는 나라를
아이들에게 물려 줄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의 염원을 담아 청원합니다.

지역아동센터전국단체연대

마을과아이들 전국가톨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지역아동센터전국연합회, 한국지역아동센터공부방협의회,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이상 5개 단체 연대)

(148) 지역아동센터 지원 (1338-300)

<일반회계 / 보건복지부 / 인구정책실 인구아동정책관 / 080사회복지 08A아동•보육>

□ 사업명 :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384억 원 증액** 요구

(단위: 백만 원)

구 분	'20년 예산(A)	'21년 예산(B)	증감		증액요구	전체금액
			(B-A)	%		
지역아동센터 지원	183,019	187,418	4,399	2,4	38,426	225,844

□ 사업개요

-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생계와 돌봄의 격차 심화.
- 긴급 돌봄에 대한 수요 발생과 결식 등 적극적 돌봄 기능을 수행
- 취약계층 돌봄 서비스 질을 저해하는 높은 이직률과 그 원인인 종사자 처우개선 시급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지원

증액요구 : 384억

○ 산출 근거

- ①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273억 원 증액 요구
 - 정부 국회제출안 : 148,643백만 원 (4,169개 소 X 619만 원 X12개월 X 48%)
 - 현장 요구안 : 170,015백만 원 (4,169개 소 X 708만 원 X12개월 X 48%)
 - (‘20년 사회복지 이용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기준 중
시설장 : **선임 사회복지사8호봉의 94%** 생활복지사 : **사회복지사4호봉의 100%**)
- ② 지역아동센터 방역비 : 96억500만원
 - 4,169개소x월 40만원x12개월x48% = 9,605백만원
- ③ 공공화 강화 시범사업비 : 9억5,100만원
 - 추가지원 신규 450개소×월 60만원×6개월x48% =951백만원
- ④ 시도지원단 운영비 : 5억7천
 - 21년 정부안에서 삭감된 국고보조율 48%→30% 570백만원

□ 현황 및 사업 필요성

1. '20년 현재 지역아동센터 월평균 운영비는 569만원, 아동 1인당 월 평균 22,760원 / 1일 1,138원
(※ 이용 아동 25명 센터, 월 20일 기준 산출) 프로그램비로 (월 운영비 10% 사용) 운영되고 있음
2. 코로나 19로 사회적 돌봄 환경 변화 (긴급 돌봄의 장기화, 온라인 학습지원 일상화, 급식(도시락) 배달 등) 에 따른 돌봄 서비스의 질 향상 및 전문 인력 확보 시급
※ 초등 3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 중 36.2%가 어린이집·유치원 등 휴원 등으로 돌봄 공백 경험 (육아정책연구소 2020)

□ 기대효과

-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한 취약계층 아동 돌봄의 질 개선 도모

□ 요구사항

- 코로나19 위기 속 지역아동센터 돌봄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최소 **384억 원** 증액 건의

사업개요 및 현황

- (사업근거) 「아동복지법」 제4조 및 제52조 제1항 제8호
- (목적)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만 18세미만)에게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오락,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 복지서비스 제공
 - * (서비스 내용) 아동 보호(안전, 급식), 교육(일상생활 지도, 학습능력 제고 등), 정서 지원(상담·가족지원), 문화(체험활동, 공연) 등
 - * (서비스 인력) 시설장 및 생활복지사(30인 미만 2명, 30인 이상 3명)
- (분포 및 이용현황) '20.7월말 4,217개소, 이용 아동 111,513명
- (현황)
 1.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위축이 21년에도 지속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후원금 감소로 인해 운영비 부족에 따라 어려움 예상됨
 2. 긴급 돌봄, 온라인 학습지원, 도시락 배달 등으로 인해 종사자 소진이 높음
 3. 지역아동센터 내 확진 아동 발생으로 근로환경이 고위험 필수 돌봄 노동 업무임
 4. 외부 지원 프로그램 강사, 자원봉사자, 실습생 등 부족한 인력에 대한 외부 의존도가 높았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유입이 어렵고 방역, 소독 강화로 인해 종사자 업무량 증대됨
- (성과) 센터 개소 수 및 이용아동 지속 확대로 학부모의 돌봄 부담 경감
 - * 센터 개소 수 : 895개소('04) → 3,690('10) → 4,127('19) → 4,211('20.5)

** 이용 아동 수 : 23,347명('04) → 100,233명('10) → 111,148명('19) → 111,704명('20.5)

○ 일반아동 비율* 지속 확대로 저소득층 위주 시설이라는 인식 개선

* ('17) 10% → ('18) 20% → ('19) 최대 40% → ('20) 최대 60%

○ (필요성)

1. 코로나19로 긴급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개별 서비스 범위 확대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사회복지이용시설 인건비 기준안 마련을 통한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을 위해 최소, **273억 원 증액 필요.**
2. 현재 민간 후원에 의존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들이 사용할 마스크, 손소독제, 소독비 등을 위한 **방역비 예산 96억5백만 원 증액 필요함.**
3. 20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실시 중인 지역아동센터 공공성 강화 시범사업 확대(현재 150개소→450개소)를 위한 운영의 민주성,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9억5천1백만 원의 증액이 필요함.**